

누가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이 용 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람들은 자원봉사 참여를 결정 할 때 우선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를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헤크만 2단계 추정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요인과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안 할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족구성원과 가입·활동 단체가 많을수록, 종교 및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연령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성별, 혼인여부, 사회·경제활동 여부 등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학력 및 소득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은 미혼 여성, 환경보존 및 범죄 예방 관련은 육체노동을 하는 중장년 남성, 자녀교육 관련은 고학력 기혼 여성, 재해 및 국가행사 관련은 고소득자의 참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원봉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용어: 자원봉사, 참여여부, 참여빈도, 사회조사, 헤크만 2단계 추정법

■ 투고일: 2015.1.31 ■ 수정일: 2015.3.17 ■ 게재확정일: 2015.3.30

I. 서론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되어감에 따라 공공영역만으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적 활동을 충족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부분 민간영역의 비영리 활동이 공공영역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보완하게 되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단체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공익적 활동을 통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원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공익적 활동 중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기부와 자원봉사이다.

기부와 자원봉사 모두 개인의 자발성과 이타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기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는 방법이 현금이나 물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반면 자원 봉사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 활동자의 시간과 노력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자원봉사는 다른 공익적 활동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 크며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투입요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타적인 동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경제적 동기가 상존하게 된다. 연구자들이 자원봉사를 정형화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으로 보는 것으로도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가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Ziemek, 2003; Katz & Rosenberg, 2005).

일반적으로 비정형적 특징을 가진 대상 및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지원도 제한된다.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율이 증가하고¹⁾ 자원봉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되면서 조직 및 국가 차원에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방안으로는 현대사회에 고착화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양적 확대와 함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질적 향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고려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는 담론적인 수준을

1)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관심에도 확대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이 강구되면서 점차 개인의 공익적 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통계청의 국내 나눔 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개인의 기부 참여율은 34.5%, 자원봉사 참여율은 17.7%로 2006년에 비해 각각 2.9%p, 3.4%p 증가했다. 그러나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기부액 규모는 GDP의 약 0.9%로 미국(1.8%)의 절반 수준이며 자원봉사 참여율도 미국(25.4%), 영국(44%), 캐나다(4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14).

벗어나 여성, 노인, 청소년 등 개인의 시간과 노력의 제공이 용이한 대상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 기관 운영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가 특정 대상 및 지역에 한정된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특히 기부는 기부여부와 기부 금액을 동시에 결정하지만 자원봉사는 개인의 시간과 노력이 직접 투입되어 활동이기 때문에 참여여부와 참여지속정도(참여빈도, 참여시간, 참여기간)의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참여한 후에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결정요소도 이러한 순차적인 결정 과정을 고려해야 분석가능하나 이를 반영한 연구는 없다. 또한 자원봉사 유형 연구도 재해 및 행사관련 자원봉사에 대한 사례분석이 대부분이어서 자원봉사 유형별 결정요소를 파악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한 자원봉사 결정요소를 분석한다. 또한 자원봉사 유형별로 결정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 자원 봉사 참여자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자원봉사 결정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할 사회조사 자료 소개와 분석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의 동기는 정신적인 소득(이타주의 향유, 사회적 명성의 소비), 자선의 소비와 배분, 숙련 및 경험 기회 획득으로 제시되고 있다.²⁾ 이러한 자원봉사의 동기들은 개인적 요인, 집단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유발되며 자원봉사 참여율과 지속성에 영향을 준다.

자원봉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상태, 소득, 직업, 종교, 자원봉사 경험, 건강상태, 나눔 행위 여부 등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경제활동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Carlin, 2001; Freeman, 1997; 김봉근·박봉석, 2013). 연령은 많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다는 결과(Herzog et al., 1989)와 높다는 결과(Hodgkinson, 1988; 조선주, 2011)가 상존하며 연령에 따라 U자형을 보인다는 결과(Menchik & Weisbrod, 1987)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사람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 수행도, 기여도, 성취도 등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Wilson & Musick, 1997; Smith, 1994; 조선주, 2011).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망과 가족구성원 및 자녀수와 연계되어 있다(Fischer et al., 1991; 김봉근·박봉석, 2013). 소득은 자원봉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Freeman, 1997; Fischer et al., 1991; 박기태 외, 2004)가 대부분이나 역U자 형태가 나타난다는 연구(김봉근·박봉석, 2013), 관계가 없다는 연구(조선주, 2006), 소득구성 중 비노동 소득이 크면 증가하는 반면 임금소득이 크면 감소한다는 연구(Menchik & Weisbrod, 1987)도 존재한다. 직업과 자원봉사의 관계는 직업(취업) 유무와 함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종사자의 지위)에 따라 분석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이 증대되는 동시에 조직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다는 연구결과(Smith, 1994)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경제활동이 시공간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원봉사 참여율을

²⁾ Mueller(1975)는 자원봉사의 동기를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이중 두 가지는 정신적 이득과 연계된 것으로 자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인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이다. 다른 두 가지는 개인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자원봉사의 성과를 공유 또는 분배하는 것과 노동시장에서의 신호기재(역량강화)를 얻는 것이다.

낮춘다는 연구도 존재한다(Bryant, 1992). 직업 유형별 자원봉사 결정요소는 소득 및 사회적 지위와 연계되어 설명되고 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자원봉사를 많이 한다는 연구가 대부분(Fischer et al., 1991)이나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제시되고 있다(박태규 외, 2004).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은 자원봉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Stukas et al., 1999), 건강이 안 좋거나 육체적 피로도가 큰 경우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태홍 외, 2007). 자원봉사 참여율은 금전적 기부와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조선주, 2006) 반면 자원봉사 참여시간과는 대체 관계가 존재한다(Carlin, 2001). 이밖에도 자원봉사를 결정하는데 개인의 태도, 기호, 능력 등 비경제적인 요인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Freeman, 1997)고 보고되고 있다.

자원봉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요인으로는 가정, 조직 등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특성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가정과 관련된 특징은 가족구성원 및 자녀수 등이 많이 논의되는데 가족구성원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원봉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Carlin, 2001, Freeman, 1997). 가족구성원의 자원봉사경험은 다른 구성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박태규 외, 2004) 이는 가족의 경험이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조직과 관련된 특징은 대부분 자원봉사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조직의 물리적 환경인 조직 규모 및 체계(Houglund & Shephard, 1985), 교육·훈련 및 직무관리(Paradis & Usui, 1987; Lammers, 1991), 보상관리(Cnaan & Cascio, 1999; Sundeen, 1992)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조직관계망 요인(직원 및 관리자와의 관계, 동료자원봉사자와의 관계,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 등)도 논의되고 있다(Pierucci & Noel, 1995; Jackson et al., 1995).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달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Smith, 2004). 자원봉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관계망(가입·활동 단체수),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 거주지역의 특성, 사회적 이질성, 정책지원 및 제도 등이 일반적인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과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 거주지역의 특성 등은 서로 연계되어 자원봉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에 우호적인 제반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사회의 전반의 이질성 정도도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김봉근과 박봉석(2013)의 연구를 보면 소득의 이질성이 커지면 자원봉사행위가 감소한다. 자원봉사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제도 또한 자원봉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동기 부여가 가능한데다 자원봉사기관과 행정기관과의 상호 연계성 정도에 따라 자원봉사기관의 활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개인적, 집단적, 환경적 요인들은 자원봉사의 참여여부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지속성(참여빈도, 참여시간, 참여기간)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소들이 자원봉사 결정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기존 연구들에서 분석한 자료의 대상 및 범위가 상이한 원인도 있지만 종속변수가 따라 영향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자원봉사 참여빈도, 참여시간, 참여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유형에 따라 결정요소들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자원봉사의 참여여부와 지속성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성, 연령 등의 영향력이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Cnaan & Cascio, 1999; Lammers, 1991; 김정현, 2010). 한국생활시간자료를 분석한 김태홍 외(2007)의 연구를 봐도 자원봉사의 참여여부 결정에는 연령,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취학 전 아동 유무, 성별, 평소 육체적 피곤정도를 나타내는 인적 변수와 소득, 학력, 취업 여부와 종사자지위, 지역, 요일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참여시간 결정에는 연령, 혼인상태, 성별, 소득, 취업 유무 및 종사자 지위 등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보육 및 복지시설 봉사(김현진·이동수, 2011), 재해관련 봉사(권영섭·정순돌, 2009), 행사관련 봉사(이혜린·이훈, 2014) 등 자원봉사 유형에 따라 영향요인이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많은 연구에서도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와 지속의지에 미치는 요소는 상이하다고 제시하고 있어(Millette & Gagne, 2008; Pearce, 1993) 각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 결정요소의 영향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 자원봉사 결정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집단적·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원봉사는 시공간적 제약이 강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빈도, 참여시간, 참여기간 등은 지속성과 관련된 변수들이 참여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관찰된다. 즉 참여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지속성 관련 변수를 분석할 경우 자원봉사를 활동을 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분석하는 선택편의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는 유형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자원봉사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유형별 결정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자원봉사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관련 변수들이 순차적으로 결정되는 것과 자원봉사의 각 유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자료 및 분석 방법

1.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 2011년과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회 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사회조사는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하여 부문별 2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조사는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부문에 대하여 2011년과 2013년 각각 전국 17,112개, 17,664개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집계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과 인터넷 조사 방법이 병행된다. 또한 조사에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단체가입 여부, 경제활동 여부 등의 개인 및 가구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회조사는 1년 동안 개인의 자원봉사 유형별 참여여부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의 지속정도와 관련된 참여 빈도, 참여시간, 그리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원봉사 관련 핵심 변수는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와 자원봉사 지속정도를 나타내는 연속변수이다. 지속정도와 관련되어 있는 변수 중 참여기간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참여시간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선택보다는 지원 기관 및 수혜기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참여빈도가 지속정도를 분석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또한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는 모두 자원봉사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동청소년, 환경보존·범죄예방, 자녀교육, 그리고 재해·행사·일반인 관련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만19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중고교생의 자원봉사 경력이 상급학교 진학의 사정자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실질적인 자원봉사 분석이 왜곡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 19세 미만의 표본을 제외하면 총 분석대상은 67,965개이다.

<표 1>은 주요 설명변수별로 자원봉사 참여율과 참여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인 자원봉사 참여율은 13.1%로 2013년은 2011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평균 참여빈도는 연 9.32회로 2013년은 2011년에 비해 연 0.5회 감소했다.

자원봉사를 설명하는 개인적 요인인 성별, 연령, 학력, 가구 소득수준, 경제활동여부(직업)와 집단·환경적 요인인 거주 지역, 단체가입여부(종교 및 봉사단체), 기부여부를 통해 자원봉사 참여율과 참여빈도를 보면 일부 요소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율은 여성, 40대, 기혼자, 고학력자의 경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소득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단체(종교 및 봉사단체)에 가입하거나 기부 및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이 자원봉사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방증한다. 반면 참여빈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별·이혼한 경우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지속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 및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참여빈도는 낮아진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참여빈도는 낮게 나타는데 이는 경제활동이 시간 제약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단체가입여부 관련 참여빈도 경향은 참여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자원봉사 유형별 참여빈도를 보면 유형에 따라 몇 가지 다른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과 자녀교육 관련 자원봉사는 여성의 참여빈도가 높은 반면 환경 및 범죄관련 자원봉사는 남성이 높다. 아동·청소년관련 자원봉사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대도시일수록, 환경 및 범죄관련 자원봉사는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중소도시일수록 참여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교육은 30~40대, 배우자가 있고 학력이 높은 경우 참여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연령대의 사람들이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자녀를 가지고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재해 및 행사 관련 자원봉사는 연령은 많고 학력은 낮을수록, 혼인경험이 있을 경우가 참여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표 1. 기초 통계량

구분	관측 치수*	참여율(%)		관측 치수**	빈도(회)		아동청소년		환경/범죄		자녀교육		재택/행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7,965	13.1	33.7	8,883	9.32	16.39	5.45	13.13	1.66	7.38	0.78	4.67	1.43	6.58	
연도	2011	33,827	13.1	33.8	4,437	9.56	18.50	5.52	14.40	1.71	8.73	0.86	4.30	1.47	7.60
	2013	34,138	13.0	33.7	4,446	9.07	13.97	5.38	11.74	1.60	5.73	0.70	5.00	1.39	5.36
성별	남성	31,835	12.4	33.0	3,963	8.35	15.30	4.06	11.53	2.48	8.91	0.40	3.48	1.40	5.28
	여성	36,130	13.6	34.3	4,920	10.09	17.18	6.57	14.19	0.99	5.78	1.08	5.42	1.45	7.46
연령	20대 이하	9,437	14.8	35.5	1,398	7.69	12.86	5.89	10.88	0.38	2.65	0.21	2.95	1.22	4.89
	30대	12,623	11.8	32.2	1,486	8.26	15.76	4.60	13.79	1.00	5.26	1.54	4.88	1.13	5.63
	40대	14,858	17.7	38.2	2,637	8.66	13.47	4.58	9.61	1.58	6.64	1.25	6.62	1.25	5.22
	50대	13,170	15.3	36.0	2,015	9.81	14.21	5.59	11.50	2.05	7.04	0.40	3.42	1.77	6.32
	60대 이상	17,877	7.5	26.4	1,347	12.72	25.54	7.45	20.50	3.29	12.49	0.16	1.75	1.83	10.57
혼인	미혼	12,246	13.6	34.3	1,668	8.15	14.55	6.20	13.05	0.50	3.05	0.18	2.70	1.28	4.89
	기혼	46,413	14.2	35.0	6,612	9.43	16.39	5.09	12.86	1.92	8.18	0.98	5.21	1.43	6.00
	사별·이혼	9,306	6.5	24.6	603	11.28	20.44	7.30	15.79	1.95	6.23	0.20	1.38	1.84	13.26
학력	중졸 이하	20,240	7.3	26.0	1,471	10.78	22.33	5.49	16.83	3.46	12.30	0.26	2.36	1.57	9.78
	고등학교	25,676	13.9	34.6	3,559	9.45	15.23	5.64	12.21	1.63	6.69	0.73	4.03	1.45	6.21
	전문대졸	8,380	14.9	35.6	1,250	8.50	12.99	4.75	10.30	1.45	6.20	1.02	4.81	1.28	5.56
	대졸 이상	13,669	19.0	39.3	2,603	8.69	15.32	5.50	13.18	0.78	4.28	1.02	6.14	1.39	5.10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2,766	7.1	25.6	901	11.56	22.69	7.51	19.42	2.26	8.01	0.21	2.08	1.59	11.20
	100~199	15,396	10.3	30.3	1,580	10.22	18.76	6.21	14.60	2.44	11.31	0.44	2.62	1.13	5.28
	200~299	15,188	12.7	33.3	1,923	9.04	14.29	5.00	11.16	1.61	5.93	0.88	4.65	1.55	6.45
	300~399	10,386	15.5	36.2	1,608	8.91	16.54	5.30	14.78	1.41	5.82	0.84	3.51	1.36	5.55
	400~599	10,087	19.1	39.3	1,930	8.22	13.01	4.45	9.06	1.26	6.10	1.08	5.63	1.44	5.56
	700만원 이상	4,142	22.7	41.9	941	9.13	14.56	5.46	10.30	1.12	5.48	0.93	7.68	1.62	6.34
경제 활동	참여함	41,487	14.2	34.9	5,881	8.20	13.62	4.48	10.69	1.76	6.74	0.59	3.62	1.36	5.51
	참여안함	26,478	11.3	31.7	3,002	11.50	20.59	7.35	16.76	1.45	8.49	1.13	6.22	1.57	8.27
거주 지역	서울	8,414	11.5	31.9	967	9.57	15.22	6.24	12.11	0.82	4.35	0.99	5.79	1.52	6.16
	광역시	23,283	12.9	33.5	3,000	10.08	18.62	6.19	15.13	1.60	9.33	0.73	3.64	1.56	6.37
	시군	36,268	13.6	34.2	4,916	8.80	15.09	4.85	11.93	1.86	6.44	0.76	4.97	1.33	6.78
단체 가입 여부	가입함	34,628	21.3	40.9	7,360	9.79	17.03	5.78	13.84	1.70	7.14	0.78	4.85	1.53	6.93
	종교단체	8,277	22.9	42.0	1,895	10.77	17.87	7.90	16.49	0.86	4.19	0.76	4.23	1.25	5.86
	봉사단체	3,395	67.0	47.0	2,275	13.25	21.24	7.23	16.62	2.96	10.72	0.86	6.22	2.20	7.64
	가입안함	33,337	4.6	20.9	1,523	7.04	12.62	3.87	8.80	1.46	8.45	0.77	3.70	0.94	4.42
기부 여부	기부함	44,193	7.2	25.9	3,187	8.90	14.97	5.13	11.86	1.73	6.47	0.73	3.57	1.31	7.74
	기부안함	23,772	24.0	42.7	5,696	9.55	17.13	5.63	13.79	1.62	7.84	0.80	5.18	1.50	5.82

주: 사회조사 2개년도 자료 중 19세 이상 연령을 가진 표본만 사용한 것이며 *은 전체 표본을 **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표본을 의미함. 자원봉사 전체 및 유형별 참여빈도 기초통계량은 자원봉사에 참여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사회조사 2011, 2013

2. 분석 방법

일반 회귀모형과는 달리 종속변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서만 관측되는 모형을 제한종속변수모형(limited dependent variable model)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최소자승법(OLS)으로 분석하면 일치추정량을 얻지 못한다(Maddala, 1983).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해당 표본의 설명변수는 관찰되나 종속변수인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경우에만 관찰되는 중도절단자료(censored data)이다. 이 경우 일치추정량을 얻으려는 자료의 성격상 좌측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빗(Tobit)모형을 이용하게 된다(이용관, 2014).³⁾

종속변수 일부가 0으로 관측되더라도 이 값을 단순히 의사표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의 결과로써 관측된 값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관측치를 단순히 분석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0으로 관측되는 것도 행동에 대한 의사표명의 결과로 고려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선택편의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가 결정된 표본에 대한 효과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원봉사 참여여부 선택과 참여빈도 선택의 순차적 과정을 모형화하여 선택편의를 최대한 통제하는 Heckman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⁴⁾

본 연구의 핵심 종속변수인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변수와 참여빈도를 결정하는 변수를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 방법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Heckman, 1979)

3) 만약 해당 종속변수가 0으로 관측되는 개인들이 자료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전혀 관찰할 수 없는 절단자료(truncated data)의 경우에는 truncated regression model을 적용해야 한다.

4) freeman(1997)은 자원봉사 공급 분석에 있어 우선 자원봉사 참여 확률에 대해 프로빗 분석을 시행한 후 자원봉사 시간을 OLS 분석하는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V_i^* = x_{1i}\beta_1 + u_{1i} \quad (1)$$

$$R_i^* = x_{2i}\beta_2 + u_{2i} \quad (2)$$

$$R_i = \begin{cases} R_i^* & \text{if } V_i^* > 0 \\ 0 & \text{if } V_i^* = 0 \end{cases} \quad (3)$$

여기서 x_{1i} 와 x_{2i} 는 각각 설명변수의 벡터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구소득, 경제활동 여부(직업), 그리고 다양한 조직·환경적 요인인 거주지역, 가족구성원, 단체 가입여부(종교단체, 봉사단체), 기부 여부이며 연도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모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R_i^* 는 V_i^* 의 값이 양(+)인 경우에만 관측되므로 어떤 행동의 분석에 있어 2단계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이 자원봉사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모형에 적용하면 2가지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로써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자원봉사를 참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이며 다음으로 자신의 효용을 최적화하는 참여빈도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이다.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식 (1)은 자원봉사 참여여부가 1(자원봉사 참여)과 0(자원봉사 불참)으로 관측되는 이항선택모형(Binary Choice Model)이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결정하는 것은 식 (2)에서 최적의 참여빈도 R_i^* 이 결정된다. 따라서 두 식을 결합하면 식(3)과 같이 $V_i^* > 0$ 즉, $V_i^* = 1$ 인 개인에 한정하여 참여 빈도 R_i^* 을 관측할 수 있다. 즉 이항선택모형의 추정에 이용되는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식 (1)의 $\hat{\beta}_1$ 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2)를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며 일치추정량 $\hat{\beta}_2$ 를 구할 수 있다. 분석에서 도출된 $\hat{\beta}_1$ 과 $\hat{\beta}_2$ 값은 각각 개인·집단·환경적 요인이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참여빈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나타낸다.

IV. 분석 결과

본 장의 모든 회귀분석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헤크만 모형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를 순차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에서 ***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와 *은 각각 5%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표 2>는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토빗 분석과 헤크만 2단계 추정법을 적용 한 결과이다. 자원봉사 참여할 것인가를 안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참여여부 결정요인을 보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결과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과 가입활동 단체가 많을수록, 종교 활동 및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에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부(-)의 관계를 가지며 혼인여부는 자원봉사 참여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우자와 사별·이혼을 한 경우 상대적으로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구성원이 적은 것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 진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원봉사 참여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경제활동 참여로 창출되는 사회적 관계망 효과 보다 이로 인한 시간공간적 제약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끝으로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 보다 중소도시의 거주할 경우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소도시일수록 지역 단위 공동체 의식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 진다.

참여빈도에 대한 분석결과 중 우선 사전적으로 참여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토빗 분석 결과 보면 자원봉사자가 여성이거나, 학력이 높거나, 소도시에 거주하거나, 특정 단체에 가입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원봉사 참여빈도가 높은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별·이혼한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낮게 나타난다. 특히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자원봉사 참여빈도에 대한 소득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참여여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계수 값의 방향과 유의성 정도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직접 분석한 결과는 참여여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선택한 다음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선택하는 헤크만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빗 분석결과와 비교하면 계수 값의 크기와 유의성뿐만 아니라 일부 설명변수의 계수 값은 부호까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참여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토빗 분석결과와는 상반된다. 일부 고령층을 제외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시공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지속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빈도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봉사의 참여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력과 거주지역에 대한 추정치의 크기는 축소될 뿐만 아니라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학력과 거주지역의 특징이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결정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요소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추정치의 부호가 부(-)의 값을 가지며 가구소득이 200~299만원인 경우 자원봉사 참여 빈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득수준과 공익적 활동에 관계가 역U자형이라고 지적한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활동 변수의 효과도 토빗 분석결과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자원봉사 지속정도의 결정요소를 분석할 때 사전단계에서 참여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선택편의 등의 문제가 발생돼 계수 값의 방향이 잘 못 추정되거나 크기가 과대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빈도 추정결과

	토빗모형 추정 (참여빈도)		헤크만 2단계 추정			
	추정치	표준편차	1단계 Probit(참여여부)		2단계 OLS(참여빈도)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여성(남성=0)	2.698***	(0.317)	0.128***	(0.015)	1.649***	(0.563)
연령	-0.099***	(0.016)	-0.007***	(0.001)	0.072**	(0.031)
기혼(미혼=0)	-0.349	(0.498)	-0.010	(0.023)	-1.089	(0.668)
사별·이혼	-3.080***	(0.736)	-0.126***	(0.035)	-2.349**	(1.052)
고졸(중졸 이하=0)	2.676***	(0.477)	0.136***	(0.023)	0.286	(0.755)
전문대졸	1.626***	(0.612)	0.084***	(0.029)	-0.352	(0.805)
대졸이상	2.453***	(0.577)	0.127***	(0.028)	0.186	(0.827)
전문관리직(무직=0)	-2.246***	(0.494)	-0.093***	(0.024)	-2.408***	(0.656)
사무직	-1.582***	(0.522)	-0.009	(0.025)	-3.651***	(0.617)
서비스판매직	-3.208***	(0.473)	-0.142***	(0.023)	-2.953***	(0.736)
농어업관련직	2.321***	(0.628)	0.224***	(0.030)	-4.750***	(1.072)
기능 및 노무직	-4.100***	(0.467)	-0.183***	(0.022)	-3.612***	(0.842)
군인	-2.328	(2.907)	-0.063	(0.137)	-3.110	(3.360)
100~199(100만원 미만=0)	-0.123	(0.539)	-0.011	(0.026)	-0.577	(0.711)
200~299	-0.584	(0.567)	-0.018	(0.027)	-1.545**	(0.729)
300~399	0.688	(0.614)	0.051*	(0.029)	-0.994	(0.799)
400~599	1.676***	(0.621)	0.124***	(0.030)	-1.241	(0.880)
700만원 이상	2.414***	(0.727)	0.153***	(0.035)	-0.475	(1.011)
광역시(서울=0)	1.600***	(0.492)	0.078***	(0.024)	1.036	(0.665)
시군	2.961***	(0.477)	0.170***	(0.023)	0.828	(0.808)
가족구성원 수	0.112	(0.150)	0.012*	(0.007)	-0.034	(0.191)
단체가입(가입안함=0)	10.044***	(0.368)	0.491***	(0.017)	3.632*	(1.892)
종교단체	16.623***	(0.451)	0.771***	(0.021)	8.567***	(2.853)
봉사단체	36.691***	(0.546)	1.945***	(0.026)	18.338***	(6.162)
기부함(기부안함=0)	10.423***	(0.325)	0.540***	(0.015)	4.152**	(1.825)
연도(2011=0)	-0.157	(0.145)	-0.007	(0.007)	-0.192	(0.179)
람다(λ)					8.995**	(4.440)
상수항	273.143	(291.077)	11.276	(13.939)	370.465	(359.305)

주: 사회조사 2개년도 자료 중 19세 이상 연령을 가진 표본 67,965개를 가지고 토빗 분석과 헤크만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결과임
자료: 사회조사 2011, 2013

이상의 결과들은 자원봉사 유형에 상관없이 전체 참여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유형별로 자원봉사의 목적과 수혜자(기관)가 다르므로 자원봉사 유형별 참여빈도를 결정하는 요소도 상이할 것이다. <표 3>은 각각 아동청소년, 환경보존 및 범죄예방, 자녀교육, 재해·국가행사·일반인 관련 자원봉사 참여빈도에 대한 2단계 추정 결과이다. 각 자원봉사 유형별 분석결과를 <표 2>의 전체결과와 비교하면 해당 유형의 자원봉사 참여빈도 결정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아동청소년 관련 자원봉사의 경우는 기혼자이거나 가족 수가 증가할수록 참여 빈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동청소년 관련 자원봉사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참여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활동 여부가 참여빈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는 아동청소년 자원봉사는 특정 시설에 방문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고려할 때 개인 보다는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보존 및 범죄예방 관련 자원봉사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자원봉사와 달리 여성의 참여빈도가 낮게 나타는데 이는 해당 자원봉사 유형이 남성 중심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연령의 증가가 자원봉사 참여빈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 장년 및 노년층에서 많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인 것을 보여준다.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 빈도가 낮아지고 기능 및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참여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볼 때 육체노동자가 많이 참여하는 유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유형과 달리 단체에 가입, 특히 종교단체와 봉사단체에 가입한 경우 참여 빈도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사회활동 여부 보다는 직업적인 요소가 자원봉사 참여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형인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교육 관련 자원봉사의 경우 기혼 여성, 그리고 가족 수의 증가가 참여빈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아동청소년 관련 자원봉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해당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자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을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참여빈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학력과 경제활동 여부가 해당 자원봉사의 참여빈도에 미치는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교육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끝으로 재해·국가행사·일반인 관련 자원봉사는 주기성을 갖지 않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연령, 학력이 참여빈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가구소득이 높은

구간에서 참여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유형의 자원봉사의 경우 일회적이나 전시 효과가 커 자아만족감을 높이고 사회의 긍정적 신호기제로 활용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 투입에 대한 기회비용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사성 자원봉사 유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 유형별 자원봉사 참여빈도에 대한 2단계 추정결과

	아동청소년		환경보존/범죄예방		자녀교육		재해/행사/일반인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여성(남성=0)	2.540***	(0.452)	-2.056***	(0.261)	0.756***	(0.164)	0.409*	(0.261)
연령	0.048*	(0.025)	0.056***	(0.014)	-0.038***	(0.009)	0.007	(0.014)
배우자 있음(미혼=0)	-2.542***	(0.537)	0.567*	(0.309)	1.347***	(0.194)	-0.461*	(0.309)
사별·이혼	-3.233***	(0.845)	0.673	(0.486)	0.801***	(0.306)	-0.589	(0.486)
고졸중졸 이하=0)	1.225**	(0.607)	-1.745***	(0.349)	0.424*	(0.220)	0.382	(0.349)
전문대졸	0.547	(0.647)	-1.529***	(0.374)	0.571**	(0.234)	0.059	(0.374)
대졸이상	1.402**	(0.664)	-2.246***	(0.383)	0.849***	(0.241)	0.181	(0.383)
전문관리직(무직=0)	-1.074**	(0.527)	-0.280	(0.305)	-0.786***	(0.191)	-0.267	(0.305)
사무직	-2.178***	(0.496)	-0.585**	(0.287)	-0.897***	(0.180)	0.009	(0.287)
서비스판매직	-2.003***	(0.591)	0.517	(0.341)	-0.866***	(0.214)	-0.601**	(0.341)
농어업관련직	-4.255***	(0.861)	-0.241	(0.497)	-0.186	(0.312)	-0.068	(0.497)
기능 및 노무직	-3.008***	(0.676)	1.047***	(0.389)	-0.766***	(0.245)	-0.886**	(0.389)
군인	-1.791	(2.701)	-1.171	(1.566)	-0.789	(0.980)	0.642	(1.566)
100~199(100만원 미만=0)	-0.609	(0.571)	0.411	(0.328)	-0.148	(0.207)	-0.231	(0.328)
200~299	-1.723***	(0.585)	-0.097	(0.337)	0.005	(0.212)	0.270	(0.337)
300~399	-0.928	(0.641)	-0.320	(0.370)	-0.086	(0.232)	0.340	(0.370)
400~599	-1.401**	(0.707)	-0.717*	(0.408)	0.254	(0.256)	0.623*	(0.408)
700만원 이상	-0.703	(0.813)	-0.755	(0.469)	0.155	(0.295)	0.829**	(0.469)
광역시(서울=0)	0.683	(0.535)	0.134	(0.308)	-0.043	(0.194)	0.262	(0.308)
시군	0.609	(0.649)	-0.423	(0.374)	0.294	(0.235)	0.348	(0.374)
가족구성원 수	-0.368**	(0.153)	0.104	(0.089)	0.297***	(0.056)	-0.066	(0.089)
단체가입(가입안함=0)	3.206**	(1.518)	-2.688***	(0.869)	1.230**	(0.549)	1.884**	(0.869)
종교단체	8.294***	(2.289)	-4.110***	(1.311)	1.719**	(0.828)	2.664**	(1.311)
봉사단체	13.934***	(4.944)	-6.440**	(2.833)	4.158**	(1.789)	6.686***	(2.833)
기부함(기부안함=0)	3.558**	(1.465)	-2.294***	(0.842)	1.250**	(0.530)	1.638**	(0.842)
연도(2011=0)	-0.073	(0.144)	-0.014	(0.083)	-0.033	(0.052)	-0.072	(0.083)
람다(λ)	7.656**	(3.562)	-5.650***	(2.040)	2.986**	(1.289)	4.003**	(2.040)
상수항	131.881	(288.748)	44.271	(166.973)	58.931	(104.711)	135.381	(166.973)

주: 사회조사 2개년도 자료 중 19세 이상 연령을 가진 표본 67,965개를 가지고 헤크만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결과임

자료: 사회조사 2011, 2013

V. 요약 및 결론

사람들은 자원봉사활동을 결정 할 때 우선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를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헤크만 2단계 추정법으로 분석하였다. 토빗 분석 결과와 비교할 결과 자원봉사 지속정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사전단계에서 참여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선택편의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계수값의 방향이 잘 못 추정되거나 크기가 과대평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크만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분석결과 중 1단계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안 할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족구성원과 가입·활동 단체가 많을수록, 종교 활동 및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2단계에서 분석한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성별, 혼인 여부, 사회·경제활동 여부 등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학력 및 소득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참여여부와 반대로 연령과 정(+)의 관계를 갖는데 이는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과 참여빈도를 높이는 정책 대상이 연령별로 상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원봉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면 아동청소년 관련은 미혼 여성, 환경보존 및 범죄예방 관련은 육체노동을 하는 중장년 남성, 자녀교육 관련은 고학력 기혼 여성, 재해 및 국가행사 관련은 고소득자의 참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 참여 여부는 자원봉사 참여여부 및 참여빈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데 자원봉사 참여에 있어 시공간적 제약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 유형별 참여여부 및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유형별로 결정요인이 달라지는 것은 자원봉사 활성화 위해서는 대상별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부 분석결과들은 자원봉사 유형별 정책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학생, 청년 대상으로는 자원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참여빈도는 연령에 대해서 참여율과 반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원봉사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이 낮는데 이들의 참여율과 참여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능기부 등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조직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권장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고 여가시간을 증대시키려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는 단계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나타난 재량시간이 자원봉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은퇴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약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높일 수 있으나 건강이나 생계 등의 문제로 인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경험도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은퇴자를 대상으로는 이들이 자원봉사 참여가 용이한 유형, 즉 환경 및 범죄예방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규모가 작아질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도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 유형별 참여 여부와 참여빈도 결정요인이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수립시 각 참여 대상별 특징을 고려한다면 자원봉사 참여율과 참여빈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의 질도 향상시키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의 결정요인을 제시했으나 자료에서 제공하는 변수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자원봉사가 시간과 노력을 직접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참여 결정을 기회비용 차원에서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 임금 또는 소득 수준, 기타 활동에 대한 시간사용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임금 수준과 시간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수준도 2011년에 한하여 주관적 소득 수준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자료에서는 관측할 수 없지만 자원봉사의 참여빈도는 개인의 생산성과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의 경험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기초자료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전국적인 조사 자료들이 축적되어 공식적인 국가통계로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어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 및 학문적 토대를 제공함을 물론 국가 프로그램 시행 및 자원봉사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계청의 인구조사 사회지표를 통해 자원봉사 관련 기본적인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단체인 볼런티어21⁵⁾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도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자원봉사에 대한 기초

자료 구축과 함께 자원봉사의 결정요소가 상이하다는 것은 자원봉사자별 교육 및 지원 체계도 상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자원봉사 유형을 더 세분화하고 본 연구에서 자료의 한계로 고려하지 못했던 요인들을 추가로 반영해 각 유형별 자원봉사 결정요인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관은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시간사용, 근로환경, 고용 및 교육정책이며 현재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E-mail: lucasie@kcti.re.kr)

5) 볼런티어21은 한국갤럽과 함께 1999년도부터 매 3년마다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영섭, 정순돌(2009). 재해구호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재학회지*, 9(3), pp.75-79.
- 김경동, 이창호, 주성수, 구혜영(2010). 국격 제고를 위한 한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김봉근, 박종석(2013). 개인의 자원봉사 결정에 대한 소득이질성의 영향분석. *노동경제논집*, 36(1), pp.45-62.
- 김정현(2010).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대구 시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4(3), pp.117-138.
- 김태홍, 김난주, 권태희(2007).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인구학*, 30(3), pp.83-105.
- 김현진, 이동수(2011).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과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8(1), pp.243-270.
- 박태규, 박수범, 김은정(2004). 자원봉사의 경제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3(1), pp.115-143.
- 이용관(2014). 주 5일 수업제 도입이 청소년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7(2), pp.49-78.
- 이혜린, 이훈(2014). 지역기반형 메가이벤트 자원봉사 경험만족과 장소애착 및 관광행동의 관계 분석. *관광·레저연구*, 26(9), pp.253-272.
- 조선주(2006). 개인의 자원봉사 행위에 관한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5(1), pp.73-99.
- 조선주(2011).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 추정. *노동정책연구*, 11(3), pp.81-107.
- 통계청(2013). *국내나눔실태 2013 보도자료*.
- Bryant, W. C. (1992). Human Capital, Time Use, and Other Family Behavior.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4), pp.395-405.
- Cnaan, R. A., Cascio, T. A. (1999). Performance and Commitment: Issues in Management of Volunteers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4(3/4).
- Carlin, P. S. (2001). Evidence on the Volunteer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Southern Economic Journal*, 67(4), pp.801-24.

- Fischer, K., Rapkin, B., Rappaport, J. (1991). Gender and Work History in the Placement and Perception of Elder Community Volunte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pp.261-279.
- Freeman, R. B. (1997). Working for Nothing: the Supply of Volunteer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1), pp.140-166.
- Heckman, J.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pp.153-161.
- Herzog, A., Kahn, L., Morgan, N., Jackson, S., Antonucci, C. (1989). Age Differences in Productive Activiti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 pp.129-138.
- Hodgkinson, V. A., Weitzman, M. S., Kirsch, A. D. (1988). *From Belief to Commitment: the Activities and Finances of Religious Congregation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Independent Sector.
- Houghnad, J. G., Shepard, J. M. (1985). Volunteerism and the Managers: The Impacts of Structural Pressure and Personal Interest on Community Participation.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4(2), pp.65-78
- Jackson, E. F., Bachmeier, M. D., Wood, J. R., Craft, E. A. (1995),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Do Religious and Associational Ties Promote Helping Behavi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4, pp.59-78.
- Katz, E., Rosenberg, J. (2005). In Economic Interpretation of Institutional Volunteering.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1(2), pp.29-43.
- Lammers, J. C. (1991). Attitudes, Motives, and Demographic, Predictors of Volunteer Commitment and Service Duration.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4, pp.125-140.
- Maddala, G. S. (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enchik, P. L., Weisbrod, B. A. (1987). Volunteer Labour Suppl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32(2), pp.159-83.
- Millette, V., Gagne, M. (2008). Designing Volunteers' tasks to Maximize Motivation,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The Impact of Job Characteristics on Volunteer Engagement. *Motivation and Emotion*, 32(1), pp.11-22.

- Mueller, M. W. (1975). Economic Determinants of Volunteer Work by Women.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2), pp.325-338.
- Paradis, L. F., Usui, W. M. (1987). Hospice Volunteers: The Impact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Retention and Job Performance. *The Hospice Journal*, 3, pp.3-30.
- Pearce, J. L. (1983). Job Attitude and Motivation Differences between Volunteers and Employees from Comparable Organiz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 pp.646-652.
- Pierucci, J., Noel, R. C. (1995). Duration of Participation of Correctional Volunteers as Function of Personal and Situational Variab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8, pp.245-250.
- Smith, D. (1994). Determinants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A Literature Review.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3(3), pp.243-263.
- Smith, D. (2004). Volunteering in Retirement: Perceptions of Mid-life Worker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3, pp.55-73.
- Stukas, A. A., Snyder, M., Clary, E. G. (1999). The Effects of Mandatory Volunteerism on Intentions to Volunteer. *Psychological Science*, 10, pp.59-64.
- Sundeen, R. A. (1992). Differences in Personal Goals and Attitudes among Volunteer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1(3), pp.271-291.
- Wilson, J., Musik, M. (1998). The Contribution of Social Resources to Volunteering. *Social Science Quarterly*, 79(4), pp.799-814.
- Ziemek, S. (2003). *The Economics of Volunteer Labor Supply An Application to Countries of a Different Development Level*. Europ̄aischer Verlag der Wissenschaften, Frankfurt/Main.

Who Will Volunteer More?

Lee, Yong-kwan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When people are deciding to volunteer is to decide whether to participate first and then to decide how much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 determinants of the individual volunteer participation using heckman's 2 step estimation method. I used micro-data from Korea social survey data to conduct probit analysis on the probability of taking part in volunteer and OLS analysis on determinants of amount of volunteer participation frequency among those participating in volunteer. I find that determinants of volunteer participation are different from determinants of volunteer participation frequency.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s of volunteer type shows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is unmarried wom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is physical worker and older men, child education is a highly educated married women, the disasters and national events is high earners appears to be high volunteer participation frequency, which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volunteer activation.

Keywords: Volunteer, Participation Decision, Participation Frequency, Social Survey, Heckman's 2 Step Estimation